

강경연 2대 회장에 오인철 건설협회 도회장

후임 부회장 천세복 협회장 거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이하 강경연) 2대 회장에 오인철 대한 건설협회 도회장(사진)이 추대됐다.

8일 경제계에 따르면 강경연 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오인철 현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오 회장은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치면 최돈진(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회장) 1

대 회장에 이어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회장을 비롯한 차기 임원진 구성과 사무국 운영 방식도 총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후임 부회장은 천세복 도관광협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강경연은 도내 33개 경제단체의 연합체로 2016년 11월 출범했다. 지난 2년간 각종 경제계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단체 입장권 구매와 관람, 중소기업인들의 정책 건의사항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하림기자 peace@

/ 내년 도정에산 6조원대 첫 진입 /

평화지역 1,328억 파격 지원 ... 남북협력기금 '5배' 급등

(42억→200억)

기금 확대해 남북 교류 선도 올림픽 시설 관리 85억 배정 저출산·일자리·고령화 역점 전국 첫 육아 기본수당 관심

내년 도정예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파격 배정됐다는 점이다.

평화지역 활성화에 투입되는 예산만 1,328억원에 달한다. 기존 접경지역 지원사업(77개·634억원), 시가지 경관개선사업(101억원), 시설현대화(80억원) 외에도 군장병 e스포츠 대회 등 문화진흥사업에 108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평화지역 지원사업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는 일부 비판도 일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출산, 일자리, 고령화를 위한 집중투자를 3대 역점사업으로 꼽은 것도 눈에 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도내에서 출생하는 아이에게 4년간 매월 50만원, 산모에게는 1년간 2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도는 연간 도내 출생아가 4만9,600여명 정도로 243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와 시·군이 7:3으로 분담한

다는 계획이다. 6·25 및 월남 참전 용사 1만2,430명에게 월 3만원의 참전 명예 수당도 저음 지급한다. 예산은 45억원이 책정됐다. 올림픽 시설 사후관리 비용은 85억원이 배정됐다. 시설 사후관리를 올림픽기념재단이 맡는다는 전제하에 재단 출범시까지 유지·관리 비용이다.

2008년 이후 10년째 42억원에 묶여 있는 남북협력기금도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50억원을 우선 출연하고 연말 정리 추경을 통해 100억원 이상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적립된 남북협력기금은 42억원 정도로 2008년 이후 10년간 남북교류가 끊기며 별다른 적립을 할 수 없었다. 도와 함께 접경지역 경기도는 현재 614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전북(101억원), 부산(63억원), 제주(52억원) 등 남부 지역도 도보다 많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늘려 공세적인 교류 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남북교류사업에 있어 타 지자체와 선의의 경쟁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확대가 필요했다"며 "내년은 평창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도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해 1,3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도가 내년부터 평화와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여 나간다는 의지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날 25일 개최된 제6회 이리스포츠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 선수단이 파주 남북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입장하는 모습. 강원일보 기자

“하루 차이로 수천만원 못 받는다니 너무 부당”

도 육아수당 형평성 논란

내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 예정인 '도 육아 기본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올 연말 출생 예정인 산모들은 불과 며칠 사이로 수천만원의 지원이 갈리는 것은 부

울해 출생아는 적용대상서 제외 온라인 맘 카페 등 성도 잇따라 "저출산 극복사업 이해 당부"

당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부 산모는 출산 시기를 되도록 내년으로 미루기 위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지역 맘카페들에는 '12월

31일과 1월1일 출생아가 하루 차이로 2,600만원을 받고, 못 받게 이해가 안 된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또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 육아 기본수당을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제기, 1,184명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의 목표가 기존 아

동 육아 부담 경감이 아닌 출산 장려인 점을 강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취지에 대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모든 사업에 지원 대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김설영기자

올림픽 경기장 유지관리비 85억 편성, 도 재정부담 가시화

**남북교류·포스트 올림픽 집중
정부용역 대비 예산공백 최소화
남북교류협력 기금 출연 50억**

강원도정 사상 처음으로 6조원 대에 진입한 내년도 당초예산은 남북 화해시대를 맞아 남북교류협력 및 포스트 올림픽 실현, 평화지역 활성화 예산 등 두 축으로 짜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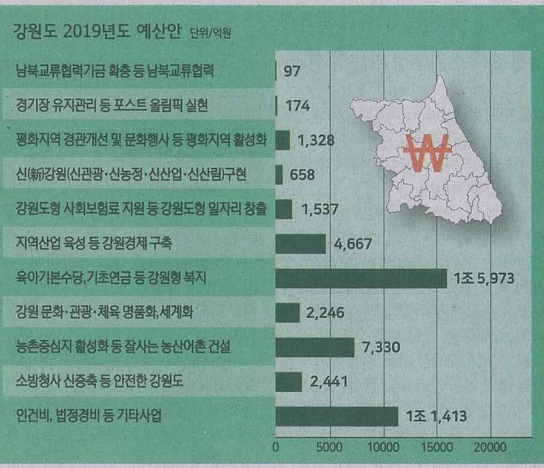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97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남북교류협력 기금 출연 50억원이다. 도 기금은 40여억원 규모로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남북교류가 끊겨 기금 확충은 어려웠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통해 50억원이 확충되면 도 기금 규모는 100억원 대가 된다. 도는 정리추경을 통해 100억원의

추가 반영키로 해도 기금은 최종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앞서 도는 지난 1999년부터 기금을 조성했으나 기금을 뒤늦게 조성한 인천, 경기 등 접경지역 광역지자체가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앞다퉀 기금을 증액하는 등 도 기금보다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 도는 기금 확충에 중점을 뒀다.

포스트 올림픽 실현은 174억원이 편성됐다. 올림픽 경기장 13개 유지관리비로 85억원, 기념관 유산조성에 24억원이 투자된다. 스피드스케이팅장 등 3개 경기장에 대한 사용자 개념의 국비 지원 여부를 판가름하는 정부 용역이 내년 5월 도출, 도는 3개 경기장 유지관리비(약 10억원)를 함께 세우 예산공백을 일단 막았다. 도는 올림픽 기념재단을 통해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를 풀어갈 방침이다. 올림픽 개최지 수준 인프라를 확

충하는 평화지역 활성화에는 1328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사업 101억원 투자를 비롯해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80억원 △접경지역 634억원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108억원 등이다. 상실 문화공연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 일회성 행사에 따른 효과 미비 논란이 제기돼 도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육아기본수당(월 70만원·4만 9623명) 243억원을 비롯한 강원형 복지모델은 1조 5973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정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야 실행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영비리에 휩싸인 강원FC운영지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90억원이 편성됐고, 강원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예산도 90억원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박지은



70년 침묵을 깨는 침묵
동해북부선 침묵 모금운동
도청 모임 '토목회' 분사 방문
침묵 구입 위한 500만원 기탁
"동해북부선 조기착공 염원 전달"



강원도청 토목회 공무원 모임인 위홍섭 회장을 비롯한 박기동·이병진 부회장이 8일 강원도 민일보를 찾아 70년 침묵을 깨는 침묵 동해북부선 침묵 모금운동에 동참한 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허인구 G1강원민방 사장과 기념촬영을 했다. 서영

"SOC사업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남북협력사업 핵심인 동해북부선(강릉-제진·104.6km) 조기 착공을 위한 70년 침묵을 깨는 침묵 동해북부선 침묵 모금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청 토목직 공무원 모임인 토목회(회장 위홍섭 지역도시과장)가 침묵 기증에 동참했다. 위홍섭 회장을 비롯한 박기동·이병진 부회장 등은 8일 오전 강원도민일보사를 방문해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허인구 G1강원민방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침묵 구입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동해북부선연결추진위원

회 동해북부선연결 강원추진위원회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회장은 "민선 7기 도정 비전,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이 필수적인 만큼 힘을 연원하는 도청 토목직 공무원들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동해북부선 침묵 모금운동은 변방의

강원도가 평화와 통일의 주도권을 쥘 기회로 시민들의 의지가 모여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허인구 G1강원민방 사장도 "SOC사업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의 동참에 감사된다"며 "동해북부선 철도가 놓여지면 자연스럽게 도로가 확충돼(남북)관광, 에너지 등 다방면의 교류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은

인터뷰 | 위홍섭 토목회장

전국 확대 조기착공 기조확산 기대
토목직 공무원 지속적 동참 약속

강원도청 토목직 공무원 모임인 토목회를 이끌고 있는 위홍섭(지역도시과장) 회장은 8일 "토목직 공무원들이 한반도 통일 역사의 주춧돌을 놓게 될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에 힘을 보태 수 있게 돼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위 회장은 "민간에서 시작된 70년 침묵을 깨는 침묵운동이 남북 화해 시대, 전 세계 유일 분단국인 강원도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도청을 비롯한 18개 시군 토목직 공무원들은 강원도 남북SOC 1순위 사업인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침묵운동의 지속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이어 "평창올림픽으로 남북 화해 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남북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야 한다"며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을 위한 침묵운동이 도전



역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기 확정 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기동·이병진 부회장은 "동해북부선 은 분단도 강원도의 하나됨을 물론 막힌 혈맥을 열어 해양과 아시아대륙,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해 강원도의 평화 번영 시대를 이룰 것"이라며 "통일 SOC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은

장례식장 (삼천동)
☎ 특실 1 (2009), 특실 2 (2609), 일반실 4 (예약실 80-1509)
☎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 500여대 무료 주차기능 대형주차장 완비

포천광역시 호원정원장례식장 ☎ (031) 252-0046

강원건축문화제 14일 춘천서 개막

2018 강원건축문화제가 도시재생을 주제로 춘천에서 열린다.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회장 김장기)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춘천시청에서 'Born-A-Gain: 도시재생'을 주제로 2018 강원건축문화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문화제는 도 건축사회가 주최하고 춘천지역 건축사회가 주관하며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 춘천시 등이 후원한다.

주요 행사는 강원건축문화상 출품작 등을 볼 수 있는 전시회로 춘천시청 1층 로비에서 마련된다. 특히 강원건축문화상 출품작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로 구성됐다. 이 밖에 도시재생 전문가의 강원도 준비됐다. 국내 주요 도시 총괄코디네이터로 주거 및 도시재생 전문가로 활동 중인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가 이번 행사 기간 '지역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심관호

도 내년 당초예산 6조2580억원 편성

강원도정 당초예산 규모가 도정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 도는 2019년도 당초예산을 올해 5조 7893억원보다 4687억원(8.1%) 증가한 6조258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예산안은 9일 강원도의회에 제출된다. 일반회계는 4조 7864억원으로 편성, 올해(4조 3500억원)보다 4364억원(10%)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433억원이다. 올해(3778억원)보다 655억원(17.3%) 늘었다. 반면 도 운용기금은 1조 283억원으로 올해(1조 615억원)보다 332억원(3.1%)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림픽 이후 유산조성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지역활성화를 위한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남북교류

협력기금 출연 50억원과 올림픽 기념관 유산조성 24억원 등 남북교류협력과 포스트 올림픽 실현에 271억원이 편성됐다. 평화(접경)지역 시가지 경관개선(101억원)을 비롯해 평화지역 상설문화공연(28억원) 등 평화지역 활성화에 1328억원이 투자되며, 강원도형 사회보호료 등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에 1537억원이 지원된다.

신강원(신관광·신농정·신산업·신산림)구현 658억원을 비롯해 전국 최초 신설되는 육아기본수당(월 70만원·243억원) 등 강원형 복지모델 실현에 1조 5973억원, 농산어촌 건설에 733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박지은

▶관런기사 4면